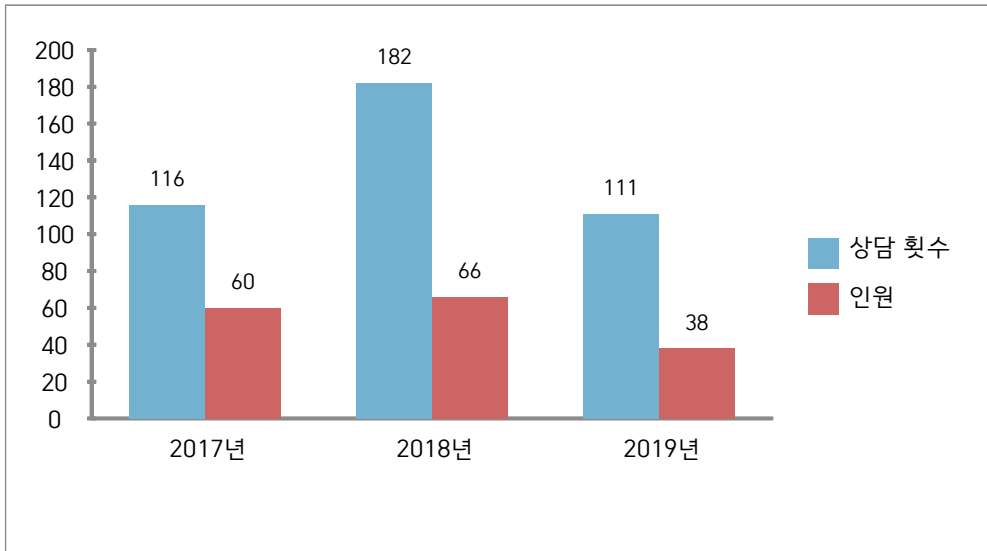


1. 그래픽으로 보는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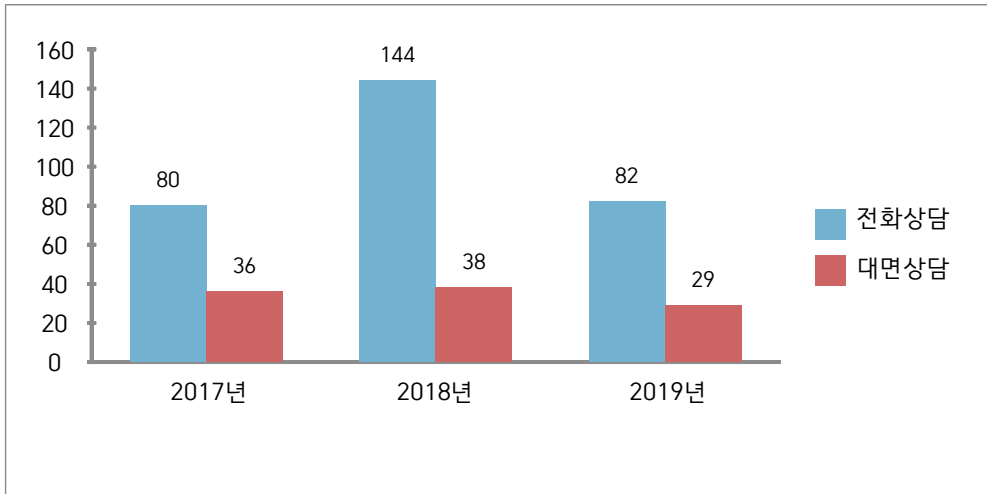
1) 연도별 상담횟수 및 통계



년도	횟 수	인원
2017년	116회	60명
2018년	182회	66명
2019년	111회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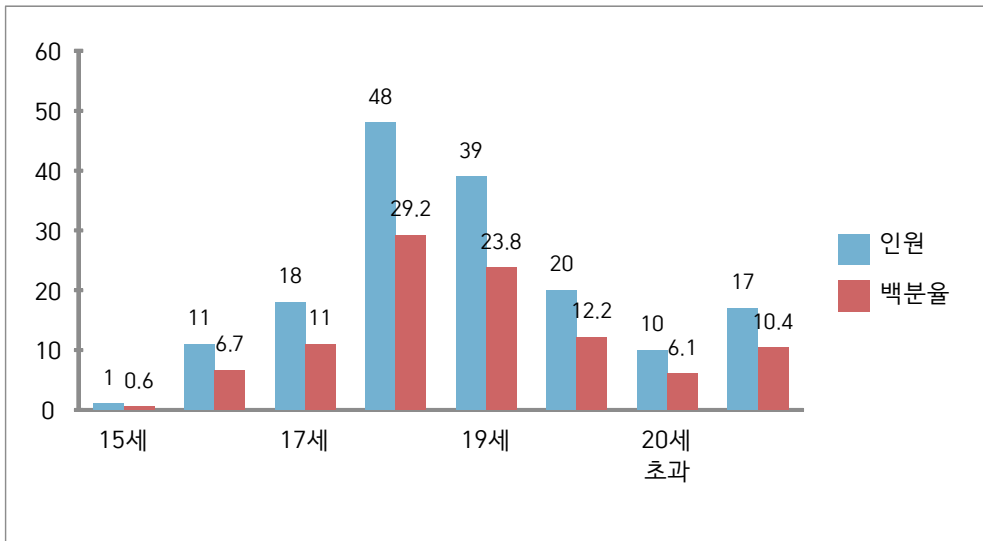
2) 전화상담 및 대면 상담

* 대면상담 경로 :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이동상담소 운영시 면담
전화 상담 이후 사무실 방문 면담



년도	전화상담	대면상담
2017년	80	36
2018년	144	38
2019년	8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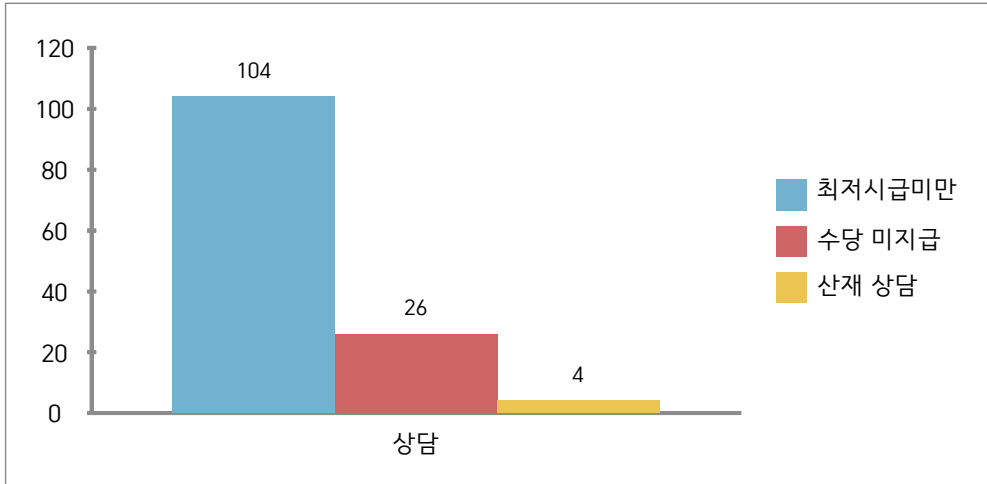
3) 상담의뢰인 연령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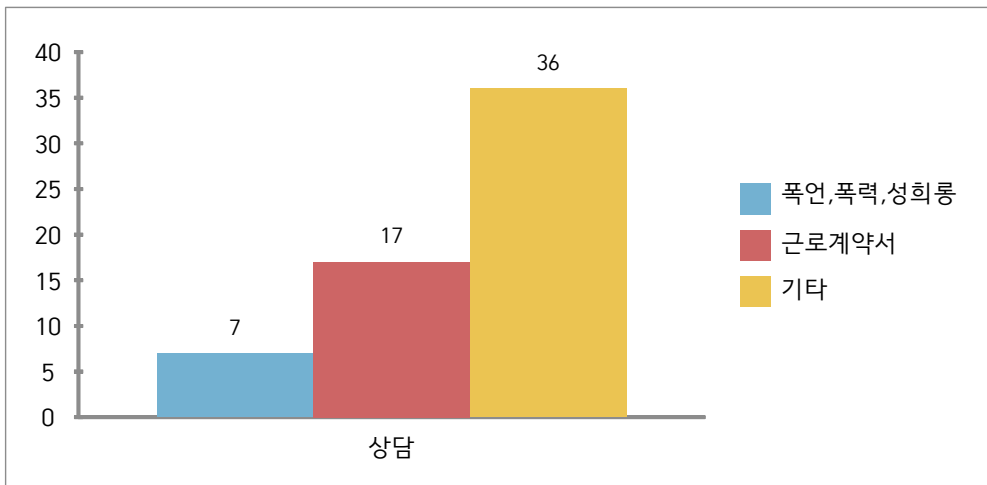
연령대	인원	백분율
15세	1명	0.6
16세	11명	6.7
17세	18명	11.0
18세	48명	29.2
19세	39명	23.8
20세	20명	12.2
20세 초과	10명	6.1
미확인(나이 밝힘 거절)	17명	10.4

4) 노동인권 침해 내용으로 상담 분류 (중복 상담)

* 상담은 단일 내용이 아니라 중복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통계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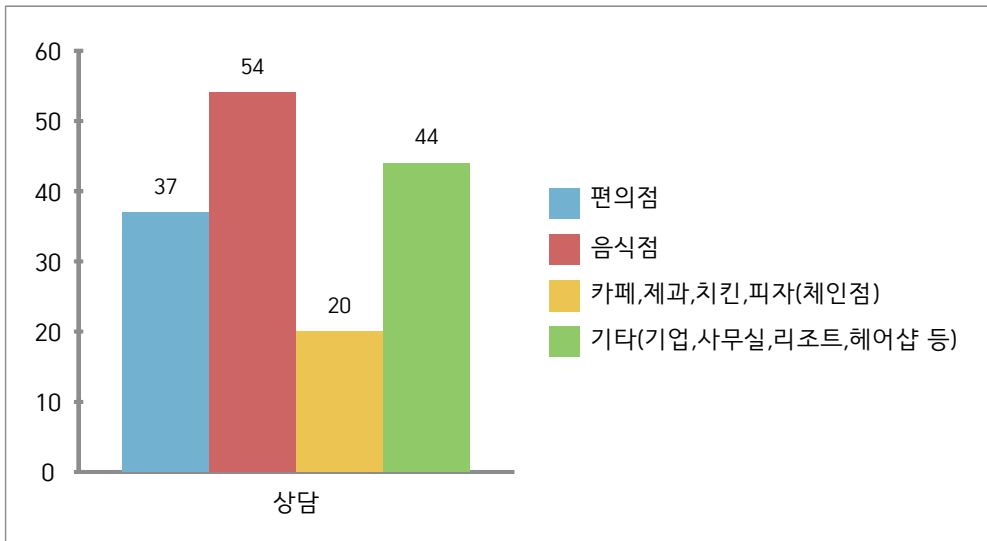


최저시급 미만	수당 미지급	산재 상담
104	26	4



폭언, 폭력, 성희롱	근로계약서	기타
7	17	36

5) 노동인권 침해 상담 사업으로 보는 통계 (2017~2019)



편의점	음식점	카페, 제과, 치킨, 피자 (체인점)	기타 (기업, 사무실, 리조트, 헤어샵 등)
37	54	20	44

2. 상담으로 보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의뢰인	- 고 1 학생
사업장	- 전단지 배포
상담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최저시급 미만 지급
근무기간	- 전단지 배포 (하루)
상담내용	- 하루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일당 25,000원을 받음. 그런데 전단지 배포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일당으로 계산하니까 최저시급보다 못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은 것 같아서 억울함. 장당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인권 수업을 통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게 되었음
권리지원	- 친구들과 같이 하루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장당으로 계산해서 2만 5천원을 수령함.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간은 12시간으로 장당으로 계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사장에게 설명함. 사장도 전단지 작업을 어떻게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불만을 나타냈지만, 최저임금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 미지급된 시급 지급으로 종결됨

의뢰인	- 고 2 학생
사업장	- 포차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없음 - 보호자 동의서 없음 - 최저 시급 미만 지급 - 주휴수당 없음 - 수습기간 시급 감액 - 장사 안된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함.
근무기간	- 14일간 / 하루 6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으나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면서 퇴근 시간을 연장하여 일을 시키기도 하고, 손님이 없다고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함.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총 근로시간 - 주휴수당 6시간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사업주와 통화 - 사업주는 당장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면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3월 6일 이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사장이 미지급된 금액 입금

의뢰인	- 23세 남
사업장	- 중국음식점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틀 일했는데 하루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임금을 주지 않음 - 사장이 심한 거친 말과 일상적으로 머리 어깨 등을 침 - SNS에 아는 형이 사장 흉을 보았다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음 - 그냥 짤림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틀 - 오전 10시~ 밤10시, 오전 10시~밤9시
상담내용	- 사장님이 거칠게 말하고 머리 어깨 등을 때려서 그러지 말라고 사장님께 '이러면 밖에서는 고소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틀째 일하는 날 설거지 문제로 트집을 잡더니 집에 가라고 함. 갑작스럽게 짤렸는데, 하루는 수습이라고 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당일 일한 6만 5천원만 임금으로 받음.
권리지원	- 사장에게 연락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명함. 사장이 입금했다고 연락 옴.

의뢰인	- 고 1 학생
사업장	- 패밀리 레스토랑 (5인 이상 사업장)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휴수당 및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성적 농담 욕설 - 최저시급 미만 지급
근무기간	- 251시간 근무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 ~금요일 : 4시간 ~ 5시간 - 토요일 : 6시간 - 일요일 : 12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7일 중 6일 근무하고 하루는 주휴일로 쉬었음. - 구두로 계약 하면서 하루 5~10시간 하기로 했음. - 성적농담이나 욕설을 들으면서 일 했음. - 식사는 평일은 샐러드바에서 식사하고 주말은 밥 2식은 제공받았음.
권리지원	- 임금 체불 내용은 주휴수당과 주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장과 통화했으나 지급의사가 없어 노동부에 진정하고 체불임금 수령함.

의뢰인	- 고 2 학생
사업장	- 음식점
상담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최저시급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기간	- 5월은 토, 일 8시간 / 6월은 토, 일 12시간
상담내용	- 주말에만 근무했고, 5월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씩 8시간, 6월에는 6시간씩 12시간 근무했음. - 시급을 받아보니까 최저시급이 안 되어 상담을 의뢰함.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봄.
권리지원	- 의뢰인이 직접 사업주와 통화해서 최저 시급 미만 금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의뢰인에게 통화하라고 알려줌. 사장이 체불된 임금은 입금함. - 주휴수당은 해당사항 없음.

의뢰인 - 고 3 학생

사업장 - 편의점

상담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시급 5,000원에 일하기로 구두합의
- 주휴 수당 미지급
- 최저시급 미만
- 3시간 30분 근무지 이탈에 12시간 근무시간 시급 공제

근무기간 - 35일

상담내용 - 곧 취업을 나가야 해서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함.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음. 시급을 5,000원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권리지원 - 면담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권리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함. 하지만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무지 이탈에 대한 12시간 시급 공제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줌
-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알려주고 추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음.

의 퇴 인	- 고 3 학생
사 업 장	- 제조업체
상담 요지	- 도제반 학생으로 일주일에 2~3회 기업으로 출근함. -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임
근무 기간	- 3월부터 ~ 계속 학습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상담 내용	- 도제반 학생으로 도제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주 이틀~삼일씩 근무하고 있음. - 노동인권 수업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됨 -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들은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음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함.
권리 지원	-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받고 있는데, 의뢰인만 빠져 있으니 까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면 줄 것 같다고 말함.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서 잘 계산 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뢰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고 주휴수당을 받도록 함. - 회사에서 확인하고 주휴수당 입금했다고 연락 옴.

의 퇴 인	- 고등학생
사 업 장	- 음식점
상담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6,470원 - 근무시간은 분단위로 계산 -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알고 싶음
근무 기간	- 약 9개월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함.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권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는데 분 단위 계산을 한다고 하면서 10분~15분씩 출퇴근 시간을 축소해서 계산하여 주 15시간이 안된 것처럼 사업주가 근무기록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했음을 의뢰인과 같이 계산함. - 의뢰인이 사업주와 통화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후 센터에서 사업주와 통화한 후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유함. - 이후 의뢰인에게 입금 되었다고 연락 옴.

의뢰인	- 고 3 학생
사업장	- 음식점
상담요지	- 퇴직금 청구 -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기간	- 약 3개월
상담내용	- 아르바이트로 평일 4시간씩 근무하여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주급으로 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음.
권리지원	- 2016년과 2017년 시급 6,5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지급 - 2017년은 7,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 - 2016년, 2017년, 2018년 주휴수당 64회 발생, 퇴직금 및 도 최저 시급에 부족한 액수도 의뢰인과 같이 계산함. - 의뢰인에게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사업주는 어떠했는지 알아봄. 사업주는 일 하는 동안 잘 대해 주는 편이었고, 일 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음 - 사업주에게 먼저 전화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알려주고 지급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에서도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해 줄 수 있도록 권유함. 의뢰인이 사장님께 상담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면서 체불된 금액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협의한 금액이 입금됨

의 퇴 인	- 고 2 학생
사 업 장	- 음식점
상담 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미지급
근무 기간	- 약 4개월 - 근무시간 : 월 ~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음 평일 : 오후 6시~ 밤12시 토요일 : 오후 5시 ~ 밤 11시 일요일 : 정오12시~ 밤10시
상담 내용	- 시급은 제대로 받았음 -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음.
권리 지원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해서 주휴 발생 주와 발생하지 않는 주에 대해 근무기록을 통해 확인함. - 사업장내 근무자 수에 대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정확히 헤아려 보도록 함. -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체불을 확인하였으나 이전에도 같은 사업장에 임금체불 사건이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사전에 설명하고 노동부 진정에 대해 설명함. - 계속해서 사업주가 센터 전화를 회피하여 문자로 노동부에 진정 준비 중이라고 알렸으나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함. - 노동부 진정 서류 접수 전에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임금에 대해 합의하자고 함. - 6월에 상담을 진행하여 9월 중순에 합의된 체불 수당 임금

의뢰인	- 고 1 학생
사업장	- 음식점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반 친구 2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함 - 둘 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서 체불된 최저시급을 받고자 함.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요일 근무 총 23일 - 시간은 230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급을 7,530원이 아니라 6,5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음 - 최저시급에 부족한 액수 1,030원을 제대로 받고 싶음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2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함. 한 명은 토, 일요일 근무하였고, 다른 한 명은 일요일만 근무하여 체불된 금액이 달라서 의뢰인과 같이 체불 금액에 대해 계산을 해 봄. - 당일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고 최저시급에 미달된 금액을 계산하여 입금해 주면 좋겠다고 권유함. - 사장이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여 입금으로 정리됨

의뢰인	- 고 3 학생
사업장	- 편의점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야간 근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청소년 장시간 근로 - 최저 시급 미달 - 주휴 수당 미지급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8개월 - 주5일 야간근무 - 주당 근무시간 : 55시간~ 60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이 있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이 5,000원으로 2017년과 2018년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분이 좋지 않았음. 조금이라도 올려줄 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음. - 노동인권 수업을 듣고 바로 상담, 면담을 하게 됨. -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는지 알고 싶음.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데 주 5일씩 어떻게 밤샘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학교 수업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었는지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함. -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시급을 올려주지 않아서 의뢰인의 마음이 좋지 않았음을 이해하면서 체불된 금액을 같이 계산함. - 체불된 액수가 상당하여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함. 처음 사업주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및 장시간 노동에 대해 설명하고 체불액이 상당하여 사업자가 벌칙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함. 처음에는 사업자가 체불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몇 일 뒤 연락이 와서 한꺼번에 체불 임금 지급은 어렵고 분할해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함. 의뢰인도 수락하여 5개월에 걸쳐 체불된 임금을 수령함.

의 퇴 인	- 남 20세
사 업 장	- 음식점
상담 요지	-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 연장, 주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근무 기간	- 7개월 -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주 6일 근무
상담 내용	- 길거리 상담 홍보 캠페인에서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연락 - 근로계약은 월급제이고 하루 휴게시간 2시간, 8시간 근무제로 계약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홀을 지키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받았음. 연장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현재 월급이 맞지 않음.
권리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내용을 의뢰인과 살펴보면서 계약조건을 확인함. - 연장과 주휴수당은 가능한데, 휴게시간 근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견을 나눔. - 휴게 시간을 2시간으로 약정한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은 1시간만 사용했음을 확인. - 사업주와 통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월급제라 할 지라도,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체불된 수당 지급을 권유했으나 사업주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여 노동청에 진정함 - 노동청 출두 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 당일 사업주도 출두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음 - 사업주와 의뢰인이 체불된 임금 액수를 합의하고 입금됨.

의뢰인	- 남
사업장	- 치킨점
상담요지	- 최저시급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비가 입금 됨. - 삼일 동안 일한 16시간은 수습기간으로 처리됨.
근무기간	- 근무일수 : 11일 - 근무시간 : 총 72시간 - 약정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상담내용	- 1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일은 수습기간이라고 했음. - 시급은 정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최저 시급보다 부족함. 가불 있음. - 수습기간 중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음.
권리지원	- 전화 및 대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짐. - 처음 3일간을 사업주가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 시급에 대해 설명함. 음식점이 단순 업무라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함. - 수습 시간을 인정하고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더라도 입금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함. - 의뢰인이 사업주와 먼저 통화해서 상담 내용을 알리고 사업주와 체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 사업주와 통화하여 수습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액수와 최저시급 미지급은 위법사항임을 알리고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권유함. - 사업주 체불된 최저 시급 입금으로 마무리

의 퇴 인	- 고 3 학생
사 업 장	- 편의점
상담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는 8,350원으로 작성했으나 실질 시급은 5,000원 이었음. - 출퇴근은 바코드로 근무기록 있음
근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일수 : 11일 - 근무시간 : 총 72시간 - 약정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 3일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했음.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적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시급이 최저 시급 보다 적은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수습 기간 시급 기준에 대해 궁금함.
권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일지, 최저 시금액을 같이 계산하여 확인함. - 점장에게 통화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된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된 시급에 대해 지급해 줄 것을 권유함. - 점장이 이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의뢰인과 해결할 수 있다고 함. - 의뢰인과 통화하여 점장이 말한 내용을 전하고 의사를 물어 봄. - 의뢰인이 점장과 통화하겠다고 결정하여, 이후 의뢰인과 점장이 체불된 시급에 대해 합의하고 정리했다고 연락옴.

의뢰인	- 고 3 학생
사업장	- 음식점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됨 -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은 약 한 달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한달 - 근무시간 : 80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 어플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함 - 업무는 홀 써빙이었는데, 상추 씻기 마늘 까기 수건 접기 채소 정리, 구이 철판 닦기까지 다 했음 -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차별하고 힘든 일은 자기에게 다 시킴. - 주휴수당이 있는지 물았는데 수업을 받고 주휴수당도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 주휴수당을 받고 싶음.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의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사업주가 다른 종업원과 차별을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줌. -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일이 서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서 매우 힘들었다는 말에 공감하고 위로함. -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어떻게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할까 의견을 물으니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서 받겠다고 말함. - 의뢰인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주휴수당을 수령함.

의뢰인	- 20세 남 9명
사업장	- 기업
상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3학년 도제반으로 도제 기업에 취업 - 회사명 변경, 도중에 동일 사장 타 기업에 파견 근무 - 최저 시급 미만의 체불임금 발생
근무기간	- 약 한 달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반 학생으로 도제기업에 취업된 상황에서 동일한 기업에서 9명의 의뢰인에게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취업한 도제기업에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 지급 - 중간에 기업 이름을 변경하였고, 사업주 명의 다른 기업으로 파견 근로를 시킴 - 학교에서 문제 제기 했으나 시정이 안 됨.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들은 3학년 재학 당시 도제 기업으로 입사할 때는 장래 핀테크도 생각해서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폐업한 바람에 인생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안타까운 마음을 의뢰인과 함께 나누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9명의 의뢰인이 갖고 있는 도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도제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그 누구도 책임 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눔. - 동일한 기업에 취업한 의뢰인이 9명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해서 임금은 수령함.

의뢰인	- 고 2 학생
사업장	- 편의점
상담요지	- 최저시급 받고 싶어요
근무기간	- 19.5시간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근무 : 19.5시간 근무 - 시급이 5,000원이 안됨 -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권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이 근무한 편의점이 이전에도 상담이 들어온 편의점이어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내용을 전함. - 사업장 방문 및 몇 차에 걸친 전화 상담으로 임금 권유 - 임금 확인으로 종결

의 퇴 인 - 고 3 학생

사 업 장 - 치킨피자

상담 요지 - 일급제로 하루 일당 식으로 임금 수령
- 일의 양이 많으면 50,000원/ 일의 양이 적으면 45,000원
- 일급제에서 도중에 월급제로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뀐 뒤 임금 받지 못함.

근무 기간 - 1.5개월
- 주 5일 근무 오후 6시 ~ 12시 하루 6시간 근무

상담 내용 - 아르바이트 기간은 1년 전으로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 하루 6시간씩 5일 월,화,수,목,금 근무를 했는데 일당으로 받을 때는 50,000원을 받거나 45,000원 현금으로 받았음.
-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것 같음. 하지만 가불은 했는데 금액은 기억에 없음.

권리 지원 -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근무 기록이나 일당제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림.
-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간이 1년 전이었는데 당시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확인되나 근무기록이나 가불액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의뢰인에게 말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을 종료함
-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 임금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상담 종료

의 퇴 인	- 고 2 학생
사 업 장	- 키즈카페
상담 요지	- 일방적 해고
근무 기간	- 약 2개월 - 주말 (토, 일요일 : 정오 ~ 오후 9시까지)
상담 내용	- 독감으로 근무일(토,일) 휴무 신청하여 쉬고 난 다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함. - 근무시간은 주말 9시간 이었지만 하루에 청소를 2시간 정도 하기도 해서 밤12시에 끝난 적도 있음. 이 시간은 시급에 들어가지 않아 시급을 받지 못함.
권리 지원	- 의퇴인이 일방적으로 해고 된 것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난 이유를 충분히 들어줌. 독감으로 인해 설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미리 휴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이 정당하냐는 의퇴인의 말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함. 실제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실정을 설명함. - 청소시간 두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데 왜 시급에 계산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의퇴인이 임금을 직접 받지 않고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근무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움. 의퇴인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에 만족한다고 하며 실질적인 권리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상담이 마무리됨.

□ 상담을 통해 본 청소년 노동의 세상

- 욕설과 무시, 성희롱, 거친 말, 거친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시급을 요구하거나,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요구하는 것이 왜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될까요?
-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그토록 바쁘게 ‘예 예’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청소년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손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 소위 말하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의 노동은 얹잡아 보면서 온갖 힘들고 고달픈 일은 청소년에게 모두 시키며 ‘일 못한다’ 비난하는 모습은 누구의 양심, 어느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 이쁘게 생겼다. 잘 생겼다 등등의 사람의 생김새와 몸에 대해 품평하는 누군가의 눈과 입은 사람의 무엇을 보는 걸까요?
- 나이가 더 많다. 아래 사람이다. 직위가 낮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뭐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우리 사회 ○○입니다.

3. 2018년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본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의 목적은 목포시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노동인권실태를 공론화하고 사회 여론화하는데 있다.

또한 목포시내 청소년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목포시청, 목포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2) 실태조사 기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찾아가는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목포시내 4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3) 실태조사 문항구성

청소년노동 실태조사의 설문지 조사의 문항으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요구도 조사」에 대한 3문항과 「아르바이트 경험조사」에 대한 2문항,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11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천천히 읽어보고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체크해 주세요.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요구도 조사

1-1. 함께 했던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에 대한 내용과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어땠나요?

①매우 좋았다 ②좋았다 ③별로였다 ④매우 별로였다

1-2. 교육 받았던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않다 ④전혀 그렇지않다

1-3.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노동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 피해대처법 등)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필요없다 ④전혀 필요없다

2. 아르바이트 경험 조사

2-1.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①남 ②여 / ■ 만(____)세

2-2.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3.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다음 문항에 답해주세요.

3-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본인도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았나요?

- ①작성 ②미작성 / ①교부받음 ②못받음

3-2.근로계약서에 여러 항목(임금, 노동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모두 작성하였나요?

- ①예 ②아니오

3-3.현재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 장소는 어디입니까?(2개까지만 체크)

- ☐ 음식점 ☐ 패스트푸드 ☐ 카페 ☐ PC방/만화방 ☐ 전단지 돌리기
☐ 편의점 ☐ 의류판매점 ☐ 제과점 ☐ 상품판매(마트/백화점) ☐ 택배/퀵서비스
☐ 분식점 ☐ 화장품판매점 ☐ 음식배달 ☐ 뷔페(결혼식장포함) ☐ 일당 막노동
☐ 주유소 ☐ 사무업무보조 ☐ 건설현장 ☐ 기타(____)

3-4. 현재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에서 지급받은 시급은 얼마를 받았나요?

- ①2016년(금액____원) ②2017년(금액____원) ③2018년(금액____원)

3-5. 언제 일을 했고, 1주일에 며칠을 일했나요?

- ①평일 ②주말(토,일) / ■ 일한일수:(____)일

3-6.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이며, 하루에 몇 시간씩 일 했나요?

- ①오전 ②오후 ③저녁 6시이후 ④ 밤10시이후 ⑤기타(____) / ■ 일한 시간:(____)시간

3-7.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았나요?

(만17세이하는 3일이상, 만18세이상은 2일이상 일하기로 한 날을 다 채운 경우에)

- ①받았다 ②못받았다 ③15시간 미만이라 해당 없음

3-8. 받은 임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 ①가정살림 ②학원비(자기계발,진로)마련 ③생활비충당(식사, 교통비, 통신비 등)
④저축 ⑤대인관계(친구, 연인 등) ⑥취미활동(문화생활, 영화관람, 여행 등)

⑦필요한 물건 구입 ⑧기타(_____)

3-9.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①있다 ②없다

3-10.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중복체크 가능)

- ① 임금을 처음 약속보다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
- ②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자주 변경되었다.
- ③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 ④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팠는데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 ⑤ 일하는 시간에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았다.
- ⑥ 일을 하면서 폭행이나 폭언(욕설)을 당한 적이 있다.
- ⑦ 일을 하면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⑧ 시재가 부족하다고 임금에서 깎이거나 내가 물어냈다.
- ⑨ 일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다.(어떤 누명인지:_____)
- ⑩ 기타(_____)

3-11.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 ① 그냥 묵묵히 참고 계속 일했다.
- ② 일을 그만두었다.
- ③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 ④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⑤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
- ⑦ 상담소 등 관련된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⑧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 ⑨ 기타 (_____)

4.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방법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방법으로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포 시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와 함께 설문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학생에 한하여 청소년노동 실태조사를 하였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요구도」에 대한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목포시내 4개 특성화고 3학년
조사기간	2018년 5월 8일~ 7월20일
표본크기	496명
표본추출방법	학 교 별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목포시내 4개 특성화고 3학년
조사기간	2018년 5월 8일~ 7월20일
표본크기	496명
표본추출방법	학 교 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목포시내 4개 특성화고 3학년
조사기간	2018년 5월 8일~ 7월20일
표본크기	267명
표본추출방법	학 교 별

Ⅱ.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요구도 조사

목포시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에게 3년동안 총 5시간의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육에 대한 3가지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함께 했던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에 대한 내용과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어땠나요?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이 노동자로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활동이 어땠는지 평가는 설문지 총응답자 중 ‘매우 좋았다’가 55.8%, ‘좋았다’가 40.1%, ‘별로였다’가 3.0%, ‘매우 별로였다’가 1.0%로 나왔다.

총 응답자의 95.9%가 수업에 대한 내용과 활동이 좋았다 이상으로 응답하여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수업내용과 활동에 대한 여부)

함께 했던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에 대한 내용과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어땠나요?				
항목	① 매우 좋았다	② 좋았다	③ 별로였다	④ 매우 별로였다
응답비율	55.8%	40.1%	3.0%	1.0%

2.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설문지 총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가 58.7%, ‘그렇다’가 38.9%, ‘그렇지 않다’가 1.8%, ‘전혀 그렇지 않다’가 0.6%로 나왔다.

총 응답자의 97.6%가 수업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을 하여 일을 하게 될 때 도움을 주는 수업이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사회생활에 도움 여부)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비율	58.7%	38.9%	1.8%	0.6%

3.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년 동안 5시간의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한 청소년이나 후배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조사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62.3%, '필요하다'가 35.1%, '필요없다'가 2.0%, '전혀 필요없다'가 0.6%로 조사되었다.

이미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총응답자의 97.4%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요구도」에 대한 조사(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인지 유무)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항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④ 전혀 필요 없다
응답비율	62.3%	35.1%	2.0%	0.6%

Ⅲ.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아르바이트 경험조사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성별과 나이를 비교해보고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1.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설문 응답자중 남학생이 52.5%, 여학생이 47.3%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5.2%가 많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중 18세 이상이 60.7%, 18세 미만이 39.1%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성별과 나이]

남학생	52.5%	18세 이상	31.7%
		18세 미만	20.8%
여학생	47.3%	18세 이상	29.0%
		18세 미만	18.3%
무응답	0.2%		0.2

2.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설문 응답자 중에서 53.8%가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절반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경험 있음	53.8%
경험 없음	46.2%

IV.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 아르바이트 장소, 시급과 일하는 시간, 받은 임금의 사용처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본인도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여러 항목(임금, 노동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모두 작성하였나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설문지 응답자 중 40.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9.2%가 일을 하면서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0.8%중에서도 58.7%만이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고, 41.3%는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0.8% 중에서 13.8%는 근로계약서에 필히 상호간에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노동조건인 임금, 노동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작성조차하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계약서	비율(%)
작성	40.8%
미작성	59.2%

[근로계약서 교부 유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
교부	58.7%
미교부	41.3%

[근로계약서 작성한 응답자 중 항목 모두 작성 유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
예	86.2%
아니오	13.8%

3.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 장소는 어디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설문지에 응답자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대해서 조사결과 음식점(37.2%)>편의점(16.7%)>뷔페(12.1%)>전단지돌리기(8.8%)>카페(3.9%)>막노동(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연소자가 일할 수 없는 PC방/만화방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로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택배/퀵서비스를 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고용사업자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도 포함되어있어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류	비율 (%)
음식점	37.2
패스트푸드	2.1
카페	3.9
PC방/만화방	1.6
전단지돌리기	8.8
편의점	16.7
의류판매점	1.2
제과점	1.0
상품판매(마트/백화점)	1.8

종류	비율 (%)
택배/퀵서비스	1.2
분식점	1.6
화장품판매점	0.4
음식배달	1.4
뷔페(결혼식장포함)	12.1
일당 막노동	2.7
주유소	0.8
사무업무보조	0.4
건설현장	1.4
기타	4.1

4.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에서 지급받은 시급은 얼마를 받았나요?(중복 체크 가능)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시급에 대해서 법정 최저시급 이상과 미만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받은 경우가 72.4%, 법정 최저시급 미만이 22.7%로 조사되었다. 2015년 실태조사 이후 3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시 급	비율(%)	시 급	비율(%)
2016년 6,030원 이상	9.7	2018년 7,530원 이상	34.3
2016년 6,030원 미만	4.6	2018년 7,530원 미만	12.7
2017년 6,470원 이상	28.4	무응답	4.9
2017년 6,470원 미만	5.4		

5. 언제 일을 했고, 1주일에 며칠을 일했나요?(중복 체크 가능)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응답자의 50.0%가 주 5일을 일하고 있었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13.0%가 주3일을 일하고 있었다.

[평일에 알바한 경우]

평일	비율(%)	평일	비율(%)
1일	1.0	4일	7.0
2일	10.0	5일	50.0
3일	13.0	무응답	19.0

주말에 알바를 하는 응답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이틀을 일하는 학생이 67.8%였다.

[주말에 알바한 경우]

주말(토, 일)	비율(%)	주말(토, 일)	비율(%)
주말 1일	13.6	주말 2일	67.8
무 응 답	18.6		

아르바이트를 하는 응답자의 63.9%가 학업이 없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평일에 알바를 하는 36.1%는 주 3일이상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평일과 주말에 알바하는 비율]

일한 요일	비율(%)
평일	36.1
주말	63.9

6.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했나요?

(중복 체크 가능)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0.5%(오후 30.4%, 저녁 6시이후 30.1%)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30.2%가 5~7시간, 24.6%가 1~4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다.

시간대	비율(%)
오전	23.9
오후	30.4
저녁 6시 이후	30.1
밤 10시 이후	2.5
기타	13.0

일하는 시간	비율(%)
1~4시간	24.6
5~7시간	30.2
8~10시간	10.8
11~12시간	3.4
13시간 이상	0.7
무응답	30.2

7.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았나요?

(중복 체크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무응답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46.0%임에도 지급받은 응답자가 12.7%에 불과하였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법으로 규정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받은 비율보다 높다는 것은 법정최저시급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체불의 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한 목적이기도 하다.

주휴수당	비율(%)	주휴수당	비율(%)
받았다	12.7	해당 안됨	41.2
못 받았다	33.3	무응답	12.7

8. 받은 임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중복 체크 가능)

설문지 응답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임금을 34.6%(가정살림(2.7%), 학원비(2.3%), 생활비 충당(18.9%), 저축(10.7%))가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흔히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돈을 벌어서 유흥비로 쓴다는 상식을 깨뜨리는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	비율(%)
가정살림	2.7
학원비(자기계발, 진로)	2.3
생활비 충당(식사, 교통비, 통신비 등)	18.9
저축	10.7
대인관계(친구, 연인 등)	12.8
취미활동(문화생활, 영화관람, 여행 등)	24.8
필요한 물건 구입	23.9
기타	3.9

9.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중복 체크 가능)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23.6%가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3.6%로 조사되었다.

부당한 대우	비율(%)
있다	23.6
없다	76.4

10.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중복 체크 가능)

처음에 약속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경된 경우가 부당함에 대한 내용중 20.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키고, 시급을 삭감시키는 경우가 17.6%, 임금이 약속과는 다르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12.6% 등 여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부당한 대우	비율(%)
임금을 약속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함	12.6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자꾸 변경	20.2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	8.4
산업재해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함	9.2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급 삭감	17.6
폭행, 폭언(욕설)	9.2
성희롱(성추행)	4.2
시재부족시 임금에서 공제	8.4
억울한 누명	4.2
기타	5.9

11.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중복 체크 가능)

그냥 묵묵히 참고 계속 일하는 비율이 35.8%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일을 그만 둔 경우가 28.4%였다.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선생님, 상담소 등 관련단체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책은 무엇일까.

대처 방안	비율(%)
그냥 묵묵히 참고 계속 일함	35.8
일을 그만둠	28.4
개인적으로 항의	15.8
가족에게 도움 요청	3.2
학교선생님에게 도움 요청	0.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	5.3
상담소 등 관련단체에 도움 요청	0.0
해결방법 몰라서 아무것도 못함	9.5
기타	2.1

감사합니다.

□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소개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4년 청소년노동인권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이 만든 청소년노동인권 단체이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 지원,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활동 내용

-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유관단체 · 활동가 노동인권 교육 및 협력
 - 청소년 고용 사업장 방문 노동인권 활동
- 상담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 청소년 노동인권 피해 상담·권리지원
 - 권리 구제 후 법률 지원 연계
 - 청소년 고용 사업주 노동인권 상담
- 정책 연구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연구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실태조사
- 홍보
캠페인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이동 상담소
 - 현수막, SNS 홍보 등

청소년노동인권 권리지원 홍보 캠페인



사업장 방문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 활동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지원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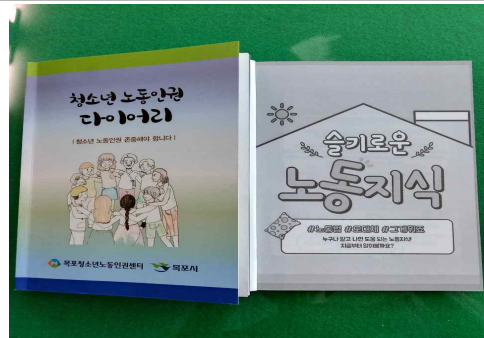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서포터즈단 활동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청소년노동인권 대학생동아리 활동



-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과 노동존중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당당히 주저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 58665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7번길 16

상 담 전 화 010-4001-4772

팩 스 061) 282-1351

사무실 전화 061) 279-1350